

# 산업시설을 겨냥한 악성코드 공격 사례 분석과 대응전략

이세찬<sup>1</sup>, 민무홍<sup>1</sup><sup>1</sup>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학부과정<sup>1</sup>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조교수

chan1031@skku.edu, iceo@skku.edu

## Malware Attacks Targeting Industrial Facilities and Response Strategies

Sechan Lee<sup>1</sup>, Moohong Min<sup>1</sup><sup>1</sup>Dept. of Computer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요 약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 산업시설을 겨냥한 악성코드 공격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은 스텝스 넷, 에칸스 랜섬웨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를 분석하고 산업시설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스텝스 넷은 이란 핵 시설의 PLC를 조작해 공격을 시도했고, 에칸스는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혼다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마비시켰으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또한 감염을 통해 시설을 마비시켰다. 위 공격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6 가지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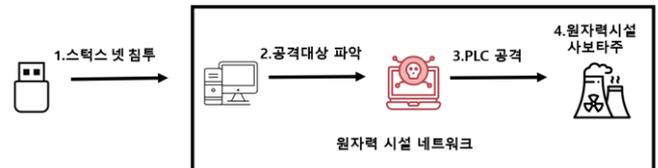
최근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2022년 방산업체 해킹 사건', '3.20 전산망 마비', '법원 전산망 해킹' 등 점점 더 정교하고 고도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은 데이터 탈취를 넘어 산업, 경제, 물리적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북한의 주요 공격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업시설 공격에 대한 사례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시설을 겨냥한 대표적인 악성코드인 '스텝스 넷', '에칸스 랜섬웨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를 분석하고, 산업시설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스텝스 넷 분석

스텝스 넷은 2010년 6월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기 위해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원자력 시설 공격용 악성코드이며, 최초로 산업시설을 공격한 악성코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스텝스 넷은 무려 4개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대만의 Realtek, Jmicron 두개의 회사에서 탈취한 디지털 인증서를 통해 운영체제의 커널에 침투하고, 최초의 산업용 루트 키를 활용하여 은밀하고 지속적인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을 가했다.

### 2.1 침투 및 공격 과정



(그림 1) 스텝스 넷 침투, 공격 과정

스텝스 넷은 감염된 USB를 통해 이란의 원자력 시설에 침투했다. 이후 공격을 위해 핵 원심분리기를 제어하는 PLC(제어장치)를 공격해야 했는데, PLC는 이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컴퓨터를 공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격 대상을 감염시킨 이후 PLC를 공격하여 핵 원심분리기의 회전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원자력 시설의 사보타주를 유도했고 결국 이란의 핵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1].

### 3. 에칸스 랜섬웨어 분석

에칸스의 이름은 뱀(Snake)을 거꾸로 부른 Ekans를 지칭한다. 에칸스는 단순한 형태의 랜섬웨어로 산업 제어시스템(ICS)를 공격하며, 2020년 혼다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공격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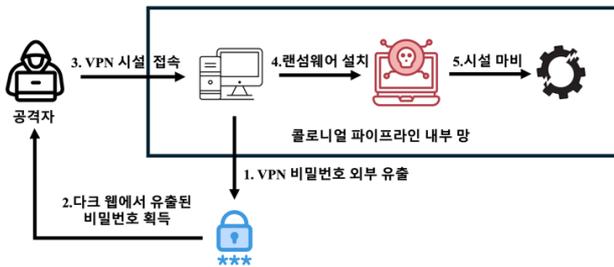
3.1 침투 및 공격 과정

자세한 침투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피싱 메일 혹은 코로나 19 로 인해 원격 근무, 공급망 공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에칸스는 산업 제어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을 중지시켜 산업시설의 작동을 중단시키고, 다른 랜섬웨어처럼 파일들을 암호화한 후 복호화를 위한 금전을 요구했다 [2].

4.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분석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미국 동부 연료 공급의 절반을 담당하는 주요 국가 산업 시설로 2021 년 해킹 조직 Darkside가 유포한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5,500 마일이 넘는 연료 파이프라인의 작동 정지, 동부 해안 연료의 45% 공급 차질, 가스 공급 가격 3\$ 상승 등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결국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공격자가 제시하는 500 만 달러 상당의 거액을 지불하고 복구기를 받아 시설을 복구 했다.

4.1 침투 및 공격 과정



(그림 2)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침투, 공격과정

우선, 시설 내 VPN 계정의 비밀번호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외부로 유출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밀번호는 다크 웹으로 유출되어 공격자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공격자는 유출된 비밀번호를 통해 VPN 에 접속, 시설에 침투하여 랜섬웨어를 설치하였다. 설치된 랜섬웨어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시설을 중지시켰다 [3].

5. 대응방안

우선, 악성코드 유입 방지를 위한 비인가 이동식 저장 장치 연결과 망 혼용 방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 시스템에는 USB Port Blocker 같은 물리적 차단 장치 혹은 비인가 USB 연결을 제한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 망 혼용되지 않도록 완벽히 구분하여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이다. 스틱스 넷이 활용한 취약점 중 CVE-2008-425(MS08-067)은 2008 년도에 이미 보안 업데이트가 완료된 취약점이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미처 하지 못한 컴퓨터를 대상으로 공격이 가해졌다. 그렇기에 지속적이고 즉각

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통해 취약점을 없애야 한다.

세 번째는 보안 등급별 네트워크의 세분화다. 시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주요 시스템은 시설 내부에 또 다른 독립 네트워크 안에 구축하여, 바이러스가 주요 시스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안 등급별로 망 분리를 세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PLC 와 같은 주요 장비들은 보안등급을 최고로 설정하고, 따로 독립 망에 구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다중 인증(MFA)의 도입이다. VPN 의 특성상 한번 연결되면,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권한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보안에 취약하다. VPN 에 연결되더라도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에 침입할 수 없도록 접근 권한에 대한 다중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중요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한 가지의 권한이 아닌 다중 권한 인증을 통해 접근 하도록 구성한다면 공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이다. 랜섬웨어의 등장 이후 금전을 목적으로 산업시설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많아졌다.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데이터를 백업하여, 감염되더라도 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보안이다. 실수 혹은 고의적인 악성 USB 연결은 아무리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라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인적 보안 강화를 위해선 산업시설 근무자들에게 비인가 USB 사용, 해킹 메일 열람 주의와 같은 지속적인 보안 교육이 필수적이다.

6. 결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100% 안전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최근 공격 사례를 살펴보면, 앞의 사례보다 더 정교한 악성코드를 개발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우리 스스로 산업시설 보안에 대한 오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관련 보안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1]Stamatis Karnouskos, "Stuxnet Worm Impact on Industrial Cyber-Physical System Security", IECON 2011-37<sup>th</sup>, Annual Conference of the IEEE Industrial Electronics  
 [2]Ben Hunter and Fred Gutierrez, "EKANS Ransomware: A Malware Targeting OT ICS Systems",Fortiguard,2020.  
 [3]Jack Beeran, David Berent, Azch Falter, Suman Bhunia,"A Review of Colonial Pipeline Ransomware Attack", 2023 IEEE/ACM 23rd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uster, Cloud and Internet Computing Workshops